



BTS 공연에
유통·관광업계
보랏빛 마케팅
L1



Life

화장품 넘어
의료·헬스까지
뷰티기업 영토확장
L2



청년 씨앗 심고, 기술로 가꿔... 미래 위한 '인재 숲' 일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중심에는 미래 세대인 '청년'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포용 금융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미래 기술과 미래 인재를 연결해 금융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두나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무(친환경 블록체인) ▲청년(인재 양성, 취약계층 청년 지원) ▲투자자 보호(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금융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두나무가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ESG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유 기술·자원 활용 ESG활동 나서 핵심 키워드 '청년'... 인재육성 강조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지원 '넥스트 잡' 인턴십·창업·금융교육 등 체계적 지원 보안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청년들의 '현실'부터 '꿈'까지...아낌없는 주는 나무로

두나무는 ESG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설정해 다양한 포용 금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청년을 돕는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와 웹3(Web3)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UPSide)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업비트 넥스트 잡(Next JOB)'은 인턴십과 창업 지원, 금융·진로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지난 3년간 대전·광주·부산 등 주요 지방 도시 거점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사회적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 총 101개 기업이 인턴십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달 기준 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은 총 1421명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기술 향상만



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53점, 경제적 지원과 미래 준비 지원 만족도는 각각 4.71점과 4.59점을 기록했다.

더불어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는 다중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채 상환과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10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시작됐으며 금융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 두 부문으로 나눠 청년들을 돕고 있다.

청년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테오리와 함께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시작된 4기 과정은 18주 동안 최신 보안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사이버보안과 웹3,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디지털 자산 이해 확대

두나무는 청년 지원을 넘어 디지털 자산 교육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다. 청년층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자산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4년 간 153개의 학교, 총 2만 9338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전국 70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수능 이후 고3 대상 특강까지 추가해 총 100개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간 금융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업클래스'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 응원 프로젝트 '업비트 Cheer up!' 캠페인도 진행했다. 학업과 진로, 경제 활동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국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미래세대 응원 캠페인'을 전 세대로 확장한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업비트 응원 장학금'을 마

1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 업비트 넥스트 잡 3개년도 참여자가 모여 소감 및 참여 이후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월 5일부터 29일까지 동작구청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업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 제공 금융격차 해소, 건강한 투자문화 형성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고객 자산 지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보안인력 강화도

련하고 10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대학생 대상 팀 서포터즈 프로그램 '업투(UpTo)'를 통해서도 업비트의 투자자 보호 활동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규제보다 앞선 '투자자 보호' 움직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신뢰 문제도 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나무는 정부 규제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금융당국이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지만 두나무는 이미 2021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Upbitcare Center)'를 설립했다. 같은 해 업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보

이스피싱 전담 콜센터를 개설했으며, 실시간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과 입출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FDS를 통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한 금액은 누적 1450억원에 달한다. 또한, 2020년 이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과 협력해 총 7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약 140억여 원의 피해액을 환급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4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148억원으로,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액 1543억원의 9.6%를 차지했다.

보안 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두나무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3.6명으로 2021년 9.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정 CISO는 "정보보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와 신뢰받는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선발...홍명보호, 3월 A매치 최정예 소집 /사진 뉴스시스
▲삼성, 매닝 대체 선수로 'WBC 호주 대표' 오러클린 영입...6주 계약

▲프로야구 경기, CGV 극장 단독 생중계...매주 일요일 2경기
▲김시우,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 50위...우승은 캐머런 영

▲'프로당구 왕중왕전 3연패' 김기영 "내 무기는 꾸준함...목표 향해 달릴 것"
▲아이스하키 HL 안양, 아시아리그 '2위'...日 닛코와 4강 PO